

# 하나의 쑨원, 서로 다른 기념: 양안의 쑨원 이미지 창출과 변용\*

고페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 하의 소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서 쑨원을 기념하는 역사적 맥락과 차이를 분석하고, 이것이 시사하는 함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쑨원은 근대 중국의 국부로 간주되는 인물로, 냉전·분단하의 양안에서 국가정통성을 위한 상징의 전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쑨원 기념 방식, 내용, 강조점을 비교하였다. 검토한 결과 타이완에서는 쑨원에 관한 상징정치가 점차 약화된 반면, 중국 대륙에서는 점차 강화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이완에서 1946년 이전의 중화민국의 역사를 현재와 점차 분리시켜 온 반면, 대륙에서는 신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를 점차 융합시켜 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의 쑨원에 대한 태도는 점차 '포용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공산당의 역사에 융합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데탕트를 계기로 중국 대륙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륙에서는 '쑨원이 양안 공통의 역사적 기억'임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타이완에서는 냉전 대립기에 '반공복국'을 지향하면서 쑨원에게 완벽한 위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를 '국부'로 칭송해 왔지만, 냉전·분단체제 해체기에 이르러 정책이 전환되면서 쑨원의 '국부' 이미지도 약화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타이완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타이완 독립의 목소리가 커지자 쑨원의 국부 이미지는 크게 해체되었다. 양안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에서 쑨원에 관한 공통의 기억이 소환되지만, 실질적인 효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제어** 쑨원, 양안, 기념, 중국 대륙, 타이완

## I. 들어가며

중국 대륙<sup>1</sup>의 70~80대 주민들에게 현대 중국의 역사적 위인이 누구냐고 묻

\* 이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코멘트를 주시고 논문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중한 의견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sup>1</sup> 1949년 이전 '중국'은 타이완을 포함한 중화민국을 가리킨다. 오늘날 '중국'이라는 명칭은 양안 경계 없이 타이완을 포괄하는 이상적 정치단위로서의 민족국가를 지칭하고, 동시에 중국 대륙이라

는다면,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오쩌둥(毛澤東)을 떠올릴 것이다. 40~60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을 비롯하여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을 위인으로 인정한다. 반면 쑨원(孫文)<sup>2</sup>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을 창립한 총통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0~30대들은 쑨원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대륙에서 쑨원을 기리는 대규모 기념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의 쑨원에 대한 태도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중국 공산당이 건국 이전이나 건국 이후나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쑨원의 열렬한 신자였고, 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기념해 왔다고 주장한다(張衛明, 2019: 146; 潘大禮 外, 2015: 77; 張海鵬, 2001: 58; 郭輝, 2016: 140; 付啟元 外, 2021: 81). 그렇다면 왜 대륙 주민들의 쑨원에 대한 기억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타이완에서도 쑨원은 국부(나라의 아버지)로 칭송되면서 숭배되는 상징적 존재다. 현재 타이베이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 국부기념관은 대표적인 쑨원 기념 명소다. 이외에도 쑨원 이름으로 명명된 다양한 장소, 도로, 학교가 많은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중국 대륙과 동명(同名)인 경우가 적잖게 있다. 이를테면 중산대학교, 중산공원, 중산로, 중산당(中山堂) 등 양안에서 모두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이완에서 그에 대한 기억이나 기념은 큰 변화가 없는가?

근대 국가에서 역사적 위인들은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그로부터 파생된 기념 정치는 항상 뜨거운 관심거리이자 쟁점이었다(Alderman, 2002). 특히 마주(媽祖)나 정청궁(鄭成功)은 분단된 양안에서 서로 쟁탈하려는 대표적인 상징이었고, 정치적 정통성을 나타내기 좋은 자원으로 간주되었다(蔡相輝, 1994: 452; 김란, 2014: 13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쑨원 또한 양안의 정통성 경쟁에서 중요한 상징적 인물로 상징할 수 있다.

는 현실적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정근식, 2014: 45). 본 연구는 1946년부터 현재의 양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1946~1949년의 통일된 양안을 중국,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대륙' 혹은 '중국 대륙'이라고 부른다.

<sup>2</sup> 쑨원(孫文, Sun Yat-sen): 호는 이셴(逸仙)이고 중산(中山)은 쑨원의 아호이다. 본 연구의 뒷부분에 '중산', '이셴', '국부'로 명명된 기념물, 건축물, 도로 등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명칭들은 모두 쑨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삼민주의', 즉 '민권', '민족', '민생'으로 명명된 장소도 마찬가지로 쑨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서 언제, 어떻게 쑨원을 기념해 왔으며,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분단 한국에서의 상징정치의 잠재적인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정근식, 2014)라는 틀에서 볼 때, 소분단 체제<sup>3</sup>인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서 각자 진행되는 쑨원 기념의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이루어진 3년간의 국공내전기, 1970년대 초반의 미중 데탕트로부터 시작된 탈냉전기,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새로운 전환기로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양안관계의 변화 및 양안 내부에서의 사회적 변동이 동아시아 체제의 구조적 환경과 조응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sup>4</sup>

이 연구는 쑨원 기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역사자료 분석방법과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이완과 관련된 역사 자료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부공보(公報),<sup>5</sup> 즉 총통부(總統府)공보, 교육부(教育部)공

<sup>3</sup> 이삼성(2006)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 북한과 한·미·일(타완과 필리핀 등도 포함)이 대분단체제의 기축을 구성하고, 그 대분단체제 내부에는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분단, 이 두 개의 민족 내부 분단체제인 소분단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sup>4</sup> 본 연구의 시기구분은 사회학자 정근식이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론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역사변동의 시기구분법에 준하였다. 이 이론은 동아시아의 (특수성 속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분단의 지속성에서 출발하여 제시된 것으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크게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시기'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점진적 해체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중 '형성과 공고화 시기'는 '1946년부터 가시화된 냉전기'와 '1차 해체 이전까지(제1국면)'로, '점진적 해체 시기'는 '제1차적 해체기', '제2차적 해체기' 또한 '2차 해체 이후 현재까지'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기의 구분, 용어 및 순서는 대체로 이를 참조했다. 다만 '2차 해체 이후 현재까지' 시기의 양안의 쑨원 기념 특징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 별도의 시기로 간주하여 '21세기 이래 양안의 쑨원 기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따로 한 챕터로 다루었다. 집권자나 일국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환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비교연구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지도자 집권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장징궈 집권 전기에 계엄을 실시하고 후기에 해엄하는 완전상반된 정책 아래 쑨원을 기념하는 시대적 특징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리덩후이가 부임 전·후반기에 쑨원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그리고 1950년대 양안은 쑨원의 기념이나 양안관계에 있어서 6·25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에 단지 일국적인 틀로는 쑨원 기념의 변화요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sup>5</sup> 공보는 일반적으로 국가·정부·정당·단체 또는 지도자가 발표한 중대한 사안이나 회의 경과, 의

보, 타이완성정부(臺灣省政府)공보, 농림처(農林處)공보 등을 비롯해 정부에서 발행한 다양한 행정조치, 그리고 『자유시보(自由時報)』 신문 기사를 검토하였다. 중국 대륙의 역사 자료는 주로 1946년 이래 회의 기록, 회의 발표문과 함께 『인민일보(人民日報)』, 『해방일보(解放日報)』, 『신화일보(新華日報)』, 『신문일보(新聞日報)』 등 다양한 신문 기사를 참고했다. 이 밖에도 양안과 한국에서 출간된 다양한 학술 논문, 저서 등 2차 자료와 언론기사, 사진자료 등도 분석 자료로 삼았다.

## II. 냉전·분단체제 형성 및 공고화 시기 양안의 쑨원 기념

1911년 쑨원이 이끈 신해혁명은 청나라의 군주독재를 무너뜨렸고, 이듬해 1월 쑨원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면서 초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처럼 건설된 민주공화국은 전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를 위해 쑨원은 삼민주의와 “오권 헌법(五權憲法)”을 내세웠다. 그는 삼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제정하여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공화국을 세우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애(博愛)’, ‘천하위공(天下為公)’, ‘세계대동(世界大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쑨원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912년 3월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고 물러났다. 그 후 쑨원은 혁명 활동을 지속하여 군주제를 전복시켰고 1912년 8월 국민당을 창건하였다. 1913년, 쑨원은 국민당을 이끌고 무력으로 위안스카이 정부를 토벌하여 2차 혁명을 일으켰다. 뒤이어 러시아 10월 혁명의 승리와 중국 공산당의 창당 등 정세 속에서 1922년 쑨원은 ‘3대 정책(三大政策: 聯蘇·聯共·工農聯合, 즉 연소·연공·공농연합)’을 내세웠고 이를 계기로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성사되었다. 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1925년, 쑨원은 암으로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그는 임종 직전 남긴 유언장에서 “반드시 민중들을 일깨워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연합하여 함께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동

결 등에 관한 공식 문서를 말한다(鄒瑜, 1991).

지들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革命尚未成功, 同志仍須努力)”고 호소하였다(續佩佩, 2016: 36-39; 中山學術資料庫-國父史蹟).

쑨원에 대한 기념과 숭배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25년 쑨원이 사망한 뒤 국민당은 그를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추모행사를 열었다. 1927년 난징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가 세워지고, 바로 이듬해인 1928년 장제스(蔣介石)가 이끈 국민혁명군이 북벌(北伐)에 성공해 중국을 통일했다. 국민당은 정권을 공고히 하고 당내 구성원 및 전국 각 민족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 쑨원을 ‘국부’ 및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하고 그의 삼민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삼민주의가 당시 중국 사회의 모순에 대한 혁명을 요구하는 강령이자, 중국의 독립, 통일, 부강의 이론적 토대였고,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비교적 완전한 민주주의 혁명 사상 체계였기 때문이다(謝俊美, 2014: 66). 따라서 국민당은 북벌 성공 후, 쑨원을 위해 그동안 오로지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능묘, 즉 중산릉(中山陵)을 건축하였고, 이곳에서 봉안대전(奉安大典)을 성대히 거행하여 전 국민들에게 쑨원을 기념하고 숭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쑨원 기념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다. 이러한 쑨원의 기념 및 숭배 공정은 그동안 확실히 국민당 통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謝俊美, 2014: 59-67; 丁留寶·張潔, 2013: 39-40).

한편,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건된 이래 약소하던 시기부터 강대해지는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공산당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성공적인 정치사상교육과 언론 홍보에 있었다. 그중 언론 홍보 과정에서 쑨원 기념이 특히 큰 역할을 하였다(靳燕凌, 2019: 78). 공산당은 1938년부터 신해혁명과 쑨원을 본격적으로 기리기 시작했고 삼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강령과 삼민주의의 유사점을 이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쑨원의 삼민주의와 3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기념·홍보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당과의 협력을 실현하고 항일전쟁의 성공을 추진하는 데 힘썼다. 동시에 공산당은 스스로 당이 신해혁명(정신)과 쑨원의 미완의 위업을 계승하여 신(新)삼민주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할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1938년 쑨원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쑨원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쑨원의 혁명공적과

혁명정신, 그리고 그가 제기한 3대 정책과 삼민주의에 역점을 둔 긍정적인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靳燕凌, 2019: 73-79; 潘大禮·黃兆, 2015: 76-77).

이렇듯 쑨원은 국민당에서는 국부로, 공산당에서의 민주혁명 선구자로 서로 다르게 기념되고 추앙받았다. 또한 이로부터 그의 삼민주의 사상, 오권헌법, 3대 정책, 그리고 그의 역사적 공적, 혁명정신, 심지어 유언장에 남긴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동지들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글까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기념되어 왔다.

## 1. 1946~1949년 국공내전기

### 1) 타이완: 탈식민지화와 중화민국화 재건

국공내전기 쑨원이라는 ‘영수 이미지’는 타이완의 탈식민지화 및 중국화(중화민국화) 재건이라는 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sup>6</sup>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을 공식 선언했을 때부터 양안은 ‘식민지-제국체제’에서 ‘냉전-분단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10월 25일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중화민국에 편입되어 광복되었다. 타이완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3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났고 공산당에게 패배한 국민당은 정권을 타이완으로 옮겼다. 이 시기 타이완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기본 집권 이념은 일제의 ‘황민(皇民)’사상을 배제하고, 체제, 사회문화, 심리적 차원에서 다시 중국과 연결을 맺는 것이었다(葉韻翠, 2014: 56).

광복 첫 날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에서 쑨원은 ‘국부’<sup>7</sup>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sup>6</sup> “카이로 선언”(1943)은 만주와 타이완, 평후 열도를 포함해 일본에 빼앗긴 중국의 영토를 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츠담 선언”(1945. 7.) 제8조에는 일본이 카이로 선언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일본 영토 범위를 명시했다.

<sup>7</sup> ‘국부(國父)’라는 명칭이 정치·법률적으로 확립된 것은 항일전쟁 때였다. 1940년 3월 21일 중국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43차 회의에서 “자당의 총리를 국부로 존칭하여 우러러 존경함을 표한다”고 결의하였다. 중상회의 결의에 따라 국민정부는 4월 1일 전국에 통령하여 총리 쑨원을 “중화민국의 국부”로 추앙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 5월 29일 국민의 정부는 또 정부 기관, 민중 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국부’라고 개칭하고, 국민당 내에서는 ‘국부’ 또는 ‘총리’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공식 선포하였다. 이날 장제스가 위촉한 타이완 행정장관 천이(陳儀, 1883~1950)는 타이완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제 타이완은 광복했습니다. … 우리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국민혁명운동을 선도하신 국부 쑨(쑨원)선생과 국부의 뜻을 계승하고 혁명의 대업을 이룩하신 장(장제스)주석입니다(國立故宮博物院 14/12/16).” 이로부터 국민당 정부는 시간, 공간, 의례, 대중매체 등 차원에서 타이완 민중들에게 일제시대 ‘황민’ 사상을 탈각시키고 중화민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공간기념의 방식으로 국민당은 도로의 재명명을 통해 황민화 요소를 없애고 중화민국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고자 했다. 1945년 11월 17일에 공표한 “타이완성 현, 시의 도로명 수정 조치[臺灣省各縣市街道名稱改正辦法]”를 검토해 보면, 제1조는 도로명 정정의 목적이 ‘일제 개념을 없애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와 제5조는 일본 인물 및 일본어로 명명된 도로명을 폐지할 것을 지시하며, 제3조는 도로명 개정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도로명 개정의 구체적인 예시 중에서는 쑨원과 관련된 명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3조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45/11/17).

- 가. 중화민족의 정신을 발양하는 것: 중화로, 신의로, 평화로 등.
- 나. 삼민주의를 선전하는 것: 삼민로, 민권로, 민족로, 민생로 등.
- 다. 국가의 위인을 기리는 것: 중산로, 중정로 등. (밑줄강조는 인용자)

중산당의 건립과 재건 역시 이 시기 공간기념의 주요 현상 중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지어진 ‘타이베이 공회당(臺北公會堂)’은 타이완 광복 이후 ‘중산당’으로 개명하고 내부의 대집회장, 대연회장, VIP룸의 명칭도 중화민국의 색채를 띤 ‘중정청(中正廳)’, ‘광복청(光復廳)’, ‘요새청(要塞廳)’으로 변경하였다. 중산당의 주요 기능은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 및 각계각층의 주요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sup>8</sup> 이것은 타이완 최초의 중산당이며 이를 이어 타이완의

하였다. 이렇게 ‘국부’는 ‘국가’, ‘국기’, ‘국장’과 같이 국가의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魏文享, 2011: 149).

<sup>8</sup> 타이베이 중산당의 공식 홈페이지(臺北中山堂官網)에 중산당의 역사 연혁 부분을 참고했다.

각 현(縣)·시(市)정부들도 중산당 건립이나 재건에 적극 동참했다.

집회와 같은 중요한 장소에 국부 유상을 비치하는 것 역시 공간기념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내무부(內務部)는 1947년 9월 “국부 영정사진 장설 방법 [國父遺像張設辦法]”을 공포하여 각 집회장소에 쑨원의 유상을 비치하고 밝고 환함,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 총통부는 “각급 학교, 기관·단체의 국기 계양 및 국부 영정사진, 원수 초상화 비치에 관한 조치 [各級機關學校團體懸掛國旗國父遺像及元首肖像辦法]”(이하 “조치”)를 공포했다. 해당 “조치”는 기관단체와 학교에서 국부유상을 비치할 것을 규정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택 내에서도 영정사진을 세워 둠으로써 국부를 향한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1948년 10월 8일 “타이완 성정부 공보”에서도 “모든 기관, 학교 및 국민주택 내부에 국부의 유상을 많이 설치하여 국부에 대한 숭배와 존경을 표해야 하며, 유상의 비치 방법은 관련 규정과 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臺灣省政府公報 48/10/8).

시간 기념의 차원에서, 명절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국부를 기념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대륙에서는 내전의 발생으로 혼란상태에 빠져 있고 국민당도 분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쑨원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나 행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타이완에서 쑨원에 대한 추모와 식목일 행사는 여전히 일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林業局局誌 46/03/12). 매년 11월 12일의 탄신기념일과 3월 12일의 식목일은 쑨원을 기념하는 가장 주요한 명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당 정부가 지정한 3월 12일 식목일은 일반적인 의미의 식목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날은 쑨원의 서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또 다른 형태의 쑨원 숭배 운동이며, 다른 쑨원 기념의례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특징이 있다(陳蘊茜, 2006: 76-88). 1946년 3월 12일, 타이완에서는 최초의 식목일을 국부 서거 20주년 기념행사와 통합하여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식목일 당일에는 각종 신문사들은 기념 특집호를 발간하고 비행기를 이용해 전단지 배포하기도 하였다. 타이베이를 제외한 각 현시에서도 같은 날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였다(臺灣省政府農林處公報 48/03/05).

또한 타이완에는 기념 횟수가 가장 많은 ‘국부기념주’라는 기념행사가 있다. 즉 매주 월요일을 기념주로 간주하여 정부기관, 단체, 학교에서 일제히 정형화

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전체 기념행사는 엄격히 “타이완성 행정장관 공서-교육청 공고”에서 명시한 국부기념주의 질서에 대한 절차화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총 10단계<sup>9</sup>로 구분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부유언장’의 낭독과 국부유상을 향한 묵념이다(臺灣省行政長官公署-教育處公告 46/12/16).

쑨원은 중화민국의 상징인물로서 그 의미와 위상은 1947년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의 공포와 시행을 통해 확고히 굳혀졌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쑨원 선생의 중화민국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 이 헌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는 중화민국의 민주는 쑨원의 삼민주의에 기초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0</sup> 그리하여 1947년부터 타이완는 삼민주의의 학풍과 교육제도를 추진했고 삼민주의가 국가 발전의 지도 강령으로 보급되었다(邱啟璦, 2011: 48). 이처럼 쑨원의 사상은 중화민국의 공식 이데올로기 상징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타이완은 중앙국민정부의 지방정부로서 중앙의 의사결정을 집행했다. 따라서 이 시기 타이완이 쑨원을 기념하는 방식과 특징은 국민당 정부가 전국(타이완과의 통일시대에 정권이 회수된 만주지역 포함)에서 기념하는 방식과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 2) 중국 대륙: 국민당 정권의 합법성 와해 및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 구축<sup>11</sup>

1946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국공내전(또는 해방전쟁)시기 쑨원에 대한 공산당

<sup>9</sup> 국부기념주의 질서에 대한 절차화 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구분된다. 1. 기념주 시작 2. 주석 취임(就位). 3. 전체인원 경건하게 서 있기. 4. 국가 제창. 5. 국기, 당기, 국부유상에 세 번 국궁예(鞠躬禮) 하기. 6. 주석은 ‘국부유언장’을 낭독하고 전체 인원이 따라서 낭독. 7. 국부유상을 향해 3분 묵념. 8. 국부의 유훈 혹은 업무보고 낭독. 9. 청년수칙(青年手冊) 낭독. 10. 의식 끝.

<sup>10</sup> 1947년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을 참고했다.

<sup>11</sup> 이 절에서는 공산당의 쑨원 기념에 대해서만 논하고 국민당의 쑨원 기념은 논의하지 않았다. 비록 이 시기 중화민국의 정권 핵심이 중국 대륙에 있어서 대륙에서 국민당의 쑨원 기념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지만, 이는 타이완의 쑨원 기념을 다루는 부분과 거의 중첩된 내용들이다. 왜냐하면 당시 타이완은 국민정부 산하의 성(省)으로서 쑨원에 대한 기념방식과 특징이 어느 정도 중앙국민정부를 대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대륙에서 국민당의 쑨원 기념은 본문 앞부분의 타이완에 대한 논술을 참고하면 된다.

의 공식 기념식이나 행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1946년에 일부 신문 보도에서 쑨원을 언급한 바 있지만, 공산당이 쑨원을 기리는 역사적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46년 기사 내용에서 쑨원을 언급한 것도 국민당 독재통치를 비판하거나 국민당 정권의 합법성을 뒤흔들기 위하여, 또는 중국 공산당이 쑨원의 혁명사업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입증하거나 국공내전의 책임을 국민당에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1946년 쑨원 서거 21주년 기념일에 『해방일보』는 “국민당 개혁 문제의 두 가지 길”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당 당내 혁신운동을 벌인 것은 쑨원의 삼민주의와 3대 정책을 위반한 ‘파시스트’, ‘파시스트 특무’라고 지적하였다(解放日報 46/03/12). 얼마 뒤 “『해방일보』는 “중국 파시스트가 쑨원 민주주의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통해 국민당을 평화로 무시하고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하면서 공산당이야말로 쑨원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들(국민당)의 서약은 내전과 독재를 이용해 국가를 해체하고 민족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이다. …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회의에서 내세운 주장은 쑨원 선생의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며, 쑨원이 제시한 ‘화평·분투·구중국(和平奮鬥救中國)’과 ‘민유·민치·민향’의 주장과도 맞물린다. …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쑨원의 혁명사업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보도하였다(解放日報 46/03/30). 또한 1946년 중국 공산당 10월 혁명 기념일에 즈음하여 『신화일보』와 『해방일보』는 사설에서 “위대한 업적, 세계혁명사상 유례가 없는 이 혁명은 그야말로 철저한 성공이다”, “러시아 혁명이 있으니 세계 인류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는 쑨원의 논평을 인용하였다(張衛明, 2019: 152). 이는 구소련 및 10월 혁명에 대한 쑨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빌어 국민당의 정치노선은 쑨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민심을 쟁취하고 국민당 정권의 합법성 기반을 점차 해체, 붕괴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1949~1970년 냉전적 대립기

### 1) 타이완: 공산당 진영과의 본격적인 대립 및 ‘대륙반격’태세 돌입

1949년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 타이완의 쑨원 기념은 냉전체제를 뚜렷이 반

영한 강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로 재현된다. 1950년대부터 타이완 정부에서는 ‘반공항아(反共抗俄)’라는 취지 아래, 공산당은 ‘공비(共匪)’, 마오쩌둥과 주더는 ‘매국노’, 소련은 ‘제국주의’와 ‘침략자’로 부르면서, 국민당은 쑨원의 삼민주의 가치를 높이 들는 “소련의 침략군(俄寇)를 몰아내고 중화를 광복시키”는 정의의 사자로 자처했다.<sup>12</sup> 이러한 표현들은 냉전적 대립구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쑨원은 중국 대륙에서 태어나 혁명운동을 선도한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대륙 또는 공산당 진영과 대립하는 상징체가 되었다.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후퇴함에 따라 중화민국 정권의 핵심이 타이완으로 옮겨 가면서 실제 행정 관할 구역이 ‘타이, 평, 진, 마(臺, 澎, 金, 馬)’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타이완이 정치적 주변부에서 일약 정치적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양안 대결의 양상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정치적 사명은 기존의 ‘일제 식민지 색채의 제거’에서 ‘반공복국(反共復國, 국: 중화민국)’ 또는 ‘반공항아’로 바뀌었다. 타이완을 하나의 ‘반공복국’의 기지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쑨원의 국부 이미지는 강화되었고 그 이미지에는 새로이 요구되는 정치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0년대 들어 형성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선전 체제는 국부의 기념 정치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내전 실패의 원인을 검토하면서 언론기관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것을 민심을 잃은 중요한 이유로 꼽고 여러 차례 가슴 아파하였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 취약하였던 농촌 통제 역시 지지를 잃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1950년대 내내 국민당 선전 사업의 중점 업무는 바로 중앙의 정령을 지방에 직접 전달하고 지방의 정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선전하향(宣傳下鄉)’이라고 한다. 그 홍보 내용에는 국부 유상 및 관련 사진의 전시와 함께 ‘국부가 종사한 혁명과 타이완의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라디오 방송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sup>12</sup> 1952년 타이완정부 반포한 조치 『印製品加印反共抗俄宣傳標語暫行辦法』에 열거한 다음과 같은 표어를 참고했다: (전쟁 관련 표어) 4. 為實現三民主義而戰. 7. 為反對共匪賣國而戰. 8. 為反抗俄國侵華而戰. 18. 為反對漢奸朱毛賣國而戰. 19. 為反對蘇俄帝國主義而戰. (반공항아 관련 표어) 6. 驅逐俄寇, 光復中華. 18. 實行三民主義.

확대했는데, 예를 들어 1952년에 “우리국부(我們的國父)”라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쑨원의 생애사를 들려줌으로써 쑨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다(林果顯, 2009: 159). 1960년대에 이르러 영화라는 신형 매체가 등장하면서는 국부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 “국부유년시대(國父幼年時代)”가 제작되었고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어린 쑨원을 ‘본보기’ 삼을 만한 이미지로 그려내어 현대 어린이들이 국부를 모범으로 삼아 배울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sup>13</sup>

이 시기의 국부기념은 시간적 기념이든 공간적 기념이든 1949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강화됐다. 1951년부터 쑨원 탄신 주년 기념일이 월례 기념행사로 확대되면서 기간이 더 길어졌고 행사도 더욱 많아졌다. 공간기념에 있어서는 중산당을 계속 건설하여 오늘날까지 타이완에서 볼 수 있는 이란(宜蘭)중산당, 가오슝 쥐잉(高雄左營)중산당, 타이난 다린(臺南大林)중산당, 가오슝 타이탕(高雄臺糖)중산당, 시후탕창(溪湖糖廠)중산당 등<sup>14</sup>이 모두 이 시기에 건설되거나 개축되었다. 이외에 1968년 착공된 국부기념관 역시 이 시기의 대표적인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중국 대륙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국민당 정부는 ‘중화문화부흥운동’으로 공산당에 대항하는 분위기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부기념관<sup>15</sup>이라는 쑨원의 지위를 탄 민족주의 색채가 가득한 정체성 건물이 탄생한 것이다(蔣雅君, 2008: 54).

또한 이 시기에 널리 불렸던 “국부기념가”도 냉전의 표상이다. 국민당 정부는 국부기념가를 빌어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동지들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쑨원의 훈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대륙에 대한 반격과 중화 부흥의 사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동시에 국부의 혁명 공적과 사상의 위대함을 극찬함으로써 쑨원의 위인 이미지를 강화하여 민중들이 단합하여 혁명(반격)을 계속할 것을 호소했다. 1950년대부터 타이완 민중들은 정부에

<sup>13</sup> 타이완 영상청취디지털박물관(臺灣影視聽數位博物館) “국부유년시대” 포스터를 참조했다.

<sup>14</sup> 이 중산당들 중 일부는 일제시대 건축물을 바탕으로 개조한 것이며, 일부는 새로 지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오슝좌영중산당과 계호당공장중산당이 각각 1951년, 1961년에 신축된 것이다. 가오슝타이당 중산당은 1966년 일본 신사에 의해 개축된 것이다.

<sup>15</sup>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부기념관은 그 거대한 규모에 비해 쑨원과 직접 연관된 전시물을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다.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물 중 쑨원과 직접 관련된 문화재는 3건에 불과했고 역사적 가치가 낮았다(王定亞, 2020: 79).

의해 국부기념가를 ‘널리 애창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정부는 각 기관과 학교에서 국부기념가를 가르치도록 규정하였고 국민들이 국부를 추모하고 수령님을 공경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臺灣省政府公報, 1954). 린통파(林桶法, 2005: 68-69)에 따르면 국부기념가는 1950~1960년대에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노래였으며 3월 12일 국부서거기념일 당일에는 곳곳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sup>16</sup>

이 밖에도 1949년 타이완에서 “계엄령”을 발표하여 계엄체제하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륙과의 왕래를 단절하고 내부적으로 질서를 안정시키고 통치를 강화했다. 계엄시기 타이완인들은 기본적으로 집회, 결사, 공개 시위를 허락 받지 못했고,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 군법재판까지 받았다. 이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사회 환경에서 정부는 전력을 다해 자신들과 다른 사상을 배제하고 타이완인의 사상을 억압했다. 쑨원 기념에 있어서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절을 거부하는 타이완 민중은 처벌받는다. 1952년 8월 8일 “타이완성 정부공보”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엔귀중학(建國中學)에는 기독교를 믿는 중학교 학생과 이란왕산초등학교(宜蘭員山國小)의 교사가 있었으며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쑨원 유상을 향해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 타이완성 정부교육청은 이에 대해 “각종 집회에서 국기 및 국부 유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정한 것이므로 모든 교원과 학생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엔귀중학교 학생 린중다(林宗大) 등 5명과 이란왕산초등학교 교원 우광화(吳光華) 일원이 기독교 신앙을 빌어 국기 및 국부 유상에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정부법령 및 학칙에 어긋나므로 엄격히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권고에 불복한다면, 즉시 학생 및 교사에게 퇴학 또는 면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시했다(臺灣省政府公報 52/08/08). 이렇듯 양안의 긴장한 대립 국면 속에서 국민당은 쑨원 기념을 통해 타이완 내에 권위체제를 구축하여 내부적으로 질서를 안정시키고 통치를 강화했다.

16 “국부 기념가” 제3절 가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民生雕蔽，國步艱難，禍患猶未已，莫散了團體，休灰了誌氣，大家要互相勉勵，國父遺言，不要忘記，革命尚未成功，同志仍須努力。”

## 2) 중국 대륙: 국민당 정부와의 대립 및 ‘무력에 의한 타이완 해방’계획 실행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쑨원은 공산당 기념행사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 시기 공산당이 개최한 쑨원 기념대회에서 냉전적 대립구도를 반영한 이데올로기적 진술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쑨원 또는 그의 사상이념을 공산주의와 접목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쑨원은 국민당을 창립하고 국민정부를 건립한 창시자이지만 이제부터는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대립하는 상징체로 역할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쑨원의 사상과 혁명적 성과를 이어받은 진정한 계승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중국은 건국 초기에 ‘러시아를 스승으로 삼겠다(以俄為師)’는 정치적 결정과 혁명(무력)을 통해 중국 전체를 해방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세웠다. 쑨원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목표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1949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제1회 쑨원 탄신 기념행동이 개최되었을 당시 난징시 정부와 여러 기관의 관리들이 중산릉을 참배하였고 쑨위(粟裕, 1907~1984)는 헌화한 뒤 “쑨원은 10월혁명 후 러시아를 스승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연소(聯蘇) 용공(容共) 농공부조(農工扶助)의 3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으며 “쑨원의 유서에는 ‘양국 동맹자는 반드시 손을 잡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상을 제기했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중국 인민들의 용감한 분투를 통해 결국 실현되었다”고 연설했다(人民日報 49/11/13).

6·25전쟁(중국 입장에서 항미원조 전쟁)이 터지면서 쑨원의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중국에서 민중들에게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과 ‘연아항미’를 호소하는 근거가 됐다. 1951년 『인민일보』는 쑨원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글에서 “쑨원의 혁명사업은 반제국주의 및 반봉건을 핵심 임무로 삼는다. … 반제국주의는 쑨원의 사업인 동시에 이제 신중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이웃인 조선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영토 타이완을 침공하고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이유 없이 살해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人民日報 51/11/12). 이렇게 쑨원의 기념을 통해 ‘미국과 대립하고 소련과 합치자’,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라는 냉전 체계의 대립구도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여유를 되찾은 대륙은 타이완과의 긴장의 수위를 끌어 올렸고 이에 따라 1954년과 1958년에 선후로 두 차례의 양안위기가 발생하였다. 공산당이 ‘무력에 의한 타이완 해방’<sup>17</sup>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쑨원의 반제국주의 사상의 인용은 ‘한국전쟁’에서 ‘타이완 통일’의 문제로 옮겨 갔다. 이 시기 쑨원의 기념회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이를테면 1955년 3월 12일 쑨원이 서거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 베이징 중난해(中南海)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쑨원 기념대회가 열렸는데, 저우언라이가 회의의 주재를 맡고 덩비우(董必武)는 총회에서 연설을 하였다(人民日報 55/03/12). 1956년 11월에 열린 ‘쑨원 탄생 90주년 기념행사’는 다시금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오쩌둥을 비롯해 중앙 고위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석했다(人民日報 56/10/23). 이날 마오쩌둥은 “쑨중산 선생을 기리며(紀念孫中山先生)”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쑨원을 ‘위대한 혁명의 선구자’라고 칭송하며 “우리는 쑨 선생이 완성하지 못한 민주혁명을 완성했다. 이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시켰고 우리는 현재 이 혁명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였다(人民日報 56/11/12).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공산당이 쑨원을 기리는 과정에서 쑨원을 완전히 긍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은 1956년 “쑨중산 선생을 기리며”에서 “많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에게 결점이 있듯이, 쑨 선생도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저우언라이는 “신해혁명은 구식의 민주혁명으로서 철저하지 못했고,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 혁명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도가 없으면 부르주아 민주혁명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 부르주아 공화국의 계획은 중국에서 통하지 않을 것”라고 쑨원의 한계를 밝혔다(人民日報 61/10/10). 이 밖에도 저우언라이는 1966년 ‘쑨원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쑨원을 “오랫동안의 실망과 고민, 탐구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스카이에 의해 신해혁명의 성과를 강탈당한” 좌절한 지도자로 묘사했고, “그는 나중에 절망 속에서 레닌이 이끄는 위대한 10월 혁명과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17 1950년 2월 28일 신중국 수립 후 처음으로 “타이완 동포들에게 고향(告臺灣同胞書)”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타이완 무력해방’이었다.

중국 공산당을 만나 비로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을 이뤄 냈다”고 말했다(人民日報 66/11/13). 요컨대 공산당은 쑨원의 자본주의 노선을 부정하면서 그의 혁명적 성과와 사회주의 진영을 연합하는 3대 정책을 부분적으로만 긍정했을 뿐이었고, 쑨원을 공산당의 도움으로 성과를 이룩한 ‘혁명선도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같은 시기 타이완이 구축한 ‘혁명에 성공하고 중화민국을 창시한 완벽하고 신성한 국부 이미지’와 대조된다.

이 시기 공산당이 쑨원을 기념한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차원에서 (국민 정부 시기의) 쑨원 기억 지우기’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쑨원 기억 재구축하기’라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다. 우선 대륙에서 진행된 쑨원 기념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층, 고위층 내부에 한정되었고, 추모를 위한 국가적 동원은 없었다. 이 밖에도 1949년 12월 23일 중국정무원(政務院)이 발표한 “전국 연중 명절 및 기념일 휴무 방법[全國年節及紀念日放假辦法]”에서도 쑨원과 관련된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았고, 중화민국 시기 전국 휴무일로 규정되었던 국부탄신일마저 취소하였다. 비록 3월 12일 식목일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수목 보호 및 조림 촉진’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념일로 간주될 뿐, 더 이상 쑨원의 서거를 기념하거나 국부를 추모하는 의미와 상징성을 나타내지 않는다(總統府公報-國定紀念日日期表 42/03/07).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쑨원은 ‘4인방(四人幫)’ 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쑨원의 기념행사가 일시 중단되고 그의 기념 장소도 모조리 파괴되고 폐쇄되었다는 것이다. 이때가 신중국 성립 이래 쑨원을 기념하는 의미와 역사적 위상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시기이다. 1966년 말, 광둥중산대학 교내의 쑨원 기념관은 폐쇄되었고(人民日報 78/11/16), 난징 쑨중산기념관 앞의 쑨원 동상도 홍위병(紅衛兵)에 의해 ‘파사구(破四舊)’라는 대자보가 붙여져 24시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요구받았다(鄒增華, 2006). 이후 장칭(江青)과 린바오(林彪)는 비원사(碧雲寺)에 들러 쑨원을 ‘우귀사신(牛鬼蛇神)’이라고 칭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비원사의 중산기념당에 설치돼 있던 마오쩌둥 주석상과 그가 쓴 쑨원에 관한 어록을 모두 치우도록 명령하였고, 중산기념당을 철거하고 비원사를 폐쇄할 것을 명했다(人民日報 77/03/13). 또한 당시 ‘4인방’의 발언을 대변하는 『신보(晨報)』와 『시사신보(時事新報)』에는 쑨원을 공격하는

글이 많이 실렸다. 『시사신보』는 “쑨원이 진짜 죽었다(孫文眞死矣)”는 글을 올렸고, 『신보(晨報)』은 “장래의 학교(將來的學校)” 등 글을 올리면서 쑨원을 추모했던 행사를 비웃고 쑨원을 “목적에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규탄했다(人民日報 77/11/21). 추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4인방’이 무너지면서 쑨원 기념 건물들은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sup>18</sup>

### III. 냉전·분단체제 점진적 해체 시기 양안의 쑨원 기념

#### 1. 1970~1980년대 전반 제1차적 해체기

##### 1) 타이완: 무력 대신 평화로운 대륙 반격 시도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냉전체제는 제1차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1차 해체기에 양안은 ‘서로 대치하면서도 무력 대신 서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특히 타이완에서는 그 전 단계의 ‘대륙 반격’ 성향이 점차 사그라지고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쑨원은 무력으로 ‘반공복국’을 하는 상징체에서 ‘삼민주의로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표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타이완은 경제 건설을 통해 타이완의 건설 가치를 부각시켜 ‘평화로운 반격(和平反攻)’을 실현하자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준 이념적 기반이 바로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 중 하나인 민생주의였다. 이로써 쑨원은 “삼민주의로 대륙에 평화로운 반격을 실시하자”는 상징체로 거듭났다.

1979년 1월 공산당은 “타이완 동포에게 보내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발표해 타이완에게 평화통일을 할 것을 호소했다. 장징궈(蔣經國, 1910-1988)<sup>19</sup>는 이에 대한

<sup>18</sup> 여기서 필자가 이 사례를 기술한 이유는 ‘중국 대륙은 과연 시종일관, 꾸준히 쑨원을 기념하거나 높이 평가했는가?’라는 연구질문에서 출발하여, 공산당이 쑨원을 기념하는 연속성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sup>19</sup>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장징궈는 그의 아버지 장제스의 뒤를 이어 국민당의 군정대권을 장악했다.

응답으로 1980년에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三民主義統一中國]’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부흥기지 인민생활의 사회경제적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프로젝트[貫徹復興基地民生主義社會經濟建設案]』를 내세워 실질적인 경제 건설을 통해 타이완의 건설 가치를 부각시켜 ‘평화로운 반격’의 실현을 도모하였다(楊永福, 1993: 41). 따라서 삼민주의는 대륙을 평화적으로 반격하는 지도사상이 되어 중국 대륙의 평화통일 방안과 대립하는 데 사용되었고, 과거 쑨원의 ‘무력으로 대륙에 반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평화적으로 대륙에 반격한다’로 바뀌었다.

쑨원의 민생주의 사상은 이 시기 타이완 경제건설의 촉매제라고도 할 수 있다. 1972년 5월 장징궈는 쑨원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를 고양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기술자를 적극 고용하여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타이완 본토 출신 엘리트를 정부 고위 관료로 임명했다(林桶法, 2005: 79). 이는 실질적으로도 타이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文化工作會, 1984). 흥미로운 점은, 이는 정근식(2014: 65)이 제시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1차 해체와 함께 한국은 미중 간 접촉과 화해로 안보위기를 느끼면서 경제적으로는 신흥 산업국가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한국 양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급속도로 악화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쑨원은 타이완 민심을 안정시키는 안정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미·중 관계의 완화에 따라 타이완은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타이완 시민들도 덩달아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1971년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면서 중화민국 국부와 국민당을 향한 타이완인들의 신앙심이 크게 흔들렸다(彼此不要羨慕 12/03/12). 이에 타이완에서는 흔들린 민심을 다잡고 국민당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부전(國父傳)>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 속에 등장한 ‘쑨원’은 공산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민당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화 속의 ‘쑨원’은 용감하게 투쟁하여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는 전형적인 위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또한 그는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매개체로도 부각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사상을 선동하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능숙한 존재로 전형화되어 묘사되었다. 구



그림 1 1986년 타이완 진먼도에서는 중국 대륙의 사면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고 적혀 있는 표어벽을 세웠다.<sup>20</sup>

체적으로 영화 속 “공산주의 조직은 환경의 다름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인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쑨원’의 대사를 통해 공산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공산당이 세계적 목표를 확정한 후에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사상적 불만과 분열을 부추기고 사회적 불안과 시위를 일으키며 전국 각지에서 불만을 확대하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는 대사에서도 공산당을 대상화된 적으로 표상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화 속 ‘쑨원’의 대사를 통해 이 시기 비록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진영과 대립하는 냉전적 진술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의 쑨원의 ‘무력으로 대륙을 역습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 2) 중국 대륙: ‘무력에 의한 타이완 해방’에서 ‘평화적 통일’ 정책으로의 이행

1970년대는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제1차적 해체와 함께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신흥 공업국으로 도약하면서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 대륙은 UN에서 중화민국(타이완 국민당 정부)을 대체하여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했고 일본, 미국과 잇따라 수교했다. 이러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sup>20</sup> 타이완 진먼도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 준 오준방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변화 속에서 대륙은 1978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확립하여 ‘경제교류부터 출발해 정치적 협력으로 향하는 경로’를 밝기 시작했다(정근식, 2014: 65-66). 이러한 데탕트 속에서 중국의 대(對) 타이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79년 덩샤오핑은 기존의 ‘무력으로 타이완을 해방한다’ 대신 ‘평화롭게 타이완을 해방한다(和平解放臺灣)’는 정책을 선언했고, 1982년에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내놓았다.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면서 대륙에서는 쑨원을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사자로 탈바꿈시켰고, 그가 내세웠던 ‘진흥중화(振興中華)’라는 구호를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슬로건으로 사용하였다. 덩샤오핑은 신해혁명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쑨원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은 지금도 대륙과 타이완을 연결하는 강력한 정신적 연결고리’라고 밝히기도 하였다.<sup>21</sup> 이 시기 쑨원의 기념대회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활발히 개최되었으며, 탄생일과 서거일, 그리고 신해혁명 기념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좌담회도 전개되었다. 또한 쑨원과 관련된 기념장소의 신축과 건립에 있어서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쑨원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쑨원에 대한 학술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한다’는 전략 아래 쑨원 관련 서적들이 잇따라 출판되었다. 이 밖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 등이 제작되면서 대중들에게 쑨원의 영상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편, 이 시기 타이완은 여전히 계엄을 유지했고 중국 공산당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륙에서는 쑨원을 또 한 차례 변신시켜 계엄 해제를 호소하는 인물로 내세웠다. 1980년 민혁중앙부주석 취우(屈武)는 쑨원 서거 55주년 기념회를 통해 장징궈에게 대륙에 대한 계엄 해제 및 대륙과의 평화 협상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타이완 당국도 같은 염황의 자손(炎黃子孫)이고 쑨원 선생의 신도였는데 무슨 이유로 ‘자외생성(自外生成)’을 하는가? … 나는 오랜 친구인 장징궈 선생을 비롯한 국민당 당국이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국가와 민족 이익을 중시하며 쑨 선생이 생전에 줄기차게 추구했던 조국의 평화통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협상의 문을 활짝 열고, 양당 협력건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국통일을 실현해야만 위

21 『덩샤오핑문선(鄧小平文選)』 제3권을 참고했다.

대한 쑨원 선생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발언했다(人民日報 80/03/12).

평화통일을 강화하자는 취지 아래 이 시기 정부는 전국적으로 쑨원의 기념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1981년, 난징 임시 대총통 사무실과 거실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1983년에는 건축면적 8,400㎡의 광저우 쑨중산기념당(孫中山紀念堂)이 완공되었다. 1985년 국무원과 베이징시 정부는 중산공원에 쑨원 동상을 새로 세웠는데, 이는 “쑨원 선생은 생전에 국가의 통일은 역사 발전과 인민의사의 주류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통일은 온 국민의 희망이며 우리는 국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바탕으로 건설된 것이다. 1986년 광저우시는 70여 만 위안의 비용을 지출하여 중산고거진열관(中山故居陳列館), 중산기념당 등의 기념 유적지를 정비하였다(人民日報 81/08/04; 人民日報 86/11/01; 人民日報 83/11/11; 人民日報 85/03/10).

이 시기에 ‘쑨원 학술교류를 전개하고 양안통일을 추진한다’라는 새로운 방안도 실행됐다. 이에 따라 대륙에서 쑨원 연구의 열풍이 불었고 쑨원과 관련된 책이 대량 출판되었다. 『신해혁명사 총간(辛亥革命史總刊)』, 『쑨중산 전집(孫中山全集)』과 『쑨중산 사상연구(孫中山思想研究)』, 『쑨중산 선집(孫中山選集)』, 『쑨중산 철학사상(孫中山哲學思想)』, 『쑨중산 선생 화책(孫中山先生畫冊)』, 『쑨중산 철학연구(孫中山哲學研究)』 등 다양한 서적이 잇따라 출간되었다(人民日報 81/05/01; 人民日報 81/04/17; 人民日報 81/10/27; 人民日報 86/10/11).

또한 이 시기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적 배경과 맞물리면서 쑨원은 나라를 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창도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 받았다. 1981년 『인민일보』에 게재된 ‘국민경제 건설에서 쑨원의 탁월한 식견을 배워야 한다’는 글에서는 “상품의 유통이 원활한 것은 부강의 대경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쑨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설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를 창조할 것을 강조(人民日報 81/09/25)하였으며, 펑진(彭真)은 1986년 쑨원 탄생 120주년의 기념 대회에서 쑨원이 내걸었던 ‘진흥중화’라는 슬로건을 빌어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밝히기도 하였다(人民日報 86/11/13).

이 시기 쑨원의 이미지는 위와 같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건국 초기 냉전 대립 구도에서의 기존 이미지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대대적으로 상영된 쑨원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공연 내

출처: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

**그림 2** 타이완 측이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표어 벽을 세운 뒤 1987년 중국 샤먼(타이완의 진먼에서 보이는 곳)에서 글자가 더 크고 선명한 ‘일국양제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피켓을 세웠다.



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쑨원의 혁명 활동을 다루면서도 쑨원이 만년에 중국 국민당을 개편하고 연리·연공·부조농공의 3대 정책을 확립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人民日報 81/06/23; 人民日報 81/09/18; 人民日報 81/09/23; 人民日報 81/12/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 상영된 영화 “쑨중산”에서 등장하는 쑨원은 혁명의 길에서 연전연패하고 거듭되는 좌절로 인해 실의에 빠지게 된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는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쑨원 외롭고 가련한 뒷모습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설령 쑨원 본인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는 더 이상 정세의 전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영화에서는 “레닌은 위대한 인물이고 혁명의 성인이다.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는 쑨원의 대사가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쑨원의 입을 통해 공산주의를 칭송하려는 영화제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해당 영화는 타이완에서 제작한 “국부전”과 같은 해에 개봉되었는데, “쑨중산”에서 외롭고 억압적이며 연전연패했던 쑨원의 이미지가 “국부전”에서 선보인 혁명에 성공한 낙천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위엄 있는 쑨원의 위인 이미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두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한 ‘쑨원’은 공산당을 찬양하고, 다른 한 ‘쑨원’은 공산당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상반된 두 ‘쑨원’의 이미지는 당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냉전시기 대립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2. 1980년대 말~2000년 제2차적 해체기

### 1) 타이완: 국민당 정치적 입지 약화 및 민주화 이행

1987년 7월 타이완 당국은 “대통령령(總統令)”을 반포하여 ‘타이완 지역은 15일 0시를 기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선포했다. “해엄령(解嚴令)”의 반포는 타이완의 근 40년 동안의 권위체제의 종결과 민주적 전환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 시기 타이완의 민주화에 따라 타이완 내 쑨원의 지배적인 위치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선 타이완은 교육 영역에서 기존의 쑨원의 ‘국부’이미지를 퇴색시켰다. 1980년대 말 타이완은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1986년 민진당의 창당, 1987년 민중의 대륙 친척방문 개방 및 언론통제(報禁)와 당금(黨禁)의 해제 등 일련의 정치개혁 조치를 겪었다. ‘이데올로기의 해빙’을 상징하는 이 모든 변화들은 사회운동과 다문화 발전을 이끌었다. 타이완은 1991년 헌정 체제를 회복시켰으며, 199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민주화 제도의 형성은 타이완 사회의 개방과 이념적 다원화를 가져왔다. 1992년 8월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과거 “국부사상” 과정을 “중화민국 헌법과 입국정신”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고, 1994년 고시청(考試廳)에서는 “국부유교”, “삼민주의” 등에 대한 시험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밖에도 1996년 대학 입시 시험은 “삼민주의”의 점수를 반으로 줄였다. 이렇듯 타이완 사회의 전환과 정당 교체에 따라 국민당 정치세력에 의존해 온 쑨원의 사상도 점차 그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 갔다(劉碧蓉, 2016: 23). 또한 이 시기에 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는 ‘민생주의’를 강조했던 장징궈와 달리 그는 삼민주의 중 ‘민권주의’를 더 강조했고 쑨원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관념을 빌려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난 삼민주의에 관한 학술연구에서도 ‘민권’류가 가장 많았고 그 내용은 대부분 개혁, 민주화,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劉碧蓉, 2016: 36).

민주화 운동 이외에 ‘본토화 운동’과 국민당 당내 투쟁에 따라 국민당의 ‘반공색채’와 ‘대중국 이데올로기’가 점차 희미해졌다.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이 되면서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점차 적게 언급하거나 회피하기 시작했다(오준방, 2019: 49). 이러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 리덩후이가 취임한 후반에 이르면서 쑨원과 관련된 명절기념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냉담해졌다. 신문에서 쑨원에 대한 보도 분량이 줄어들면서 사실 역시 더 이상 국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특집호를 통해 국부를 대대적으로 다루던 관행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국부기념관도 기존에는 중화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키우고 혁명정신과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념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쑨학(Sunology)’을 연구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 권력통치에서 벗어난 이 시기 쑨학의 연구 내용도 기존의 교조화, 정치적 입장과는 달리 보다 다원화되고 실증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邱啟璦, 2011: 51).

요컨대 1980년대 말에도 쑨원은 여전히 타이완에서 국부로 추앙받았고 그의 삼민주의도 여전히 국민정부에 의해 존경받았지만, 그 추앙의 초점은 민생주의에서 민권주의로 바뀌었고 타이완은 이를 이용해 국가의 민주화 발전을 추진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면서 민주화의 진전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함에 따라 쑨원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차원의 기념도 점점 약화되었고 타이완 내 쑨원의 지배적인 위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 2) 중국 대륙: 애국주의 강화 및 양안 평화통일 정책의 추진

1980년대 말 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는 제2차적 해체를 맞았다. 이 시기 타이완은 계엄을 해제[解嚴]했고, 양안은 교류를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륙에서 쑨원은 여전히 양안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이미지로 광범위하게 기념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달리 80년대 말, 1990년대 초부터 대륙은 민족주의 ‘재소환 및 재기[再度興起]’단계에 들어섰고 항일전쟁의 역사가 애국주의 교육의 주제가 되었다(任丙強, 2004: 78). 쑨원은 또다시 ‘위대한 애국주의자’라는 명분으로 중국 대륙 내에서 기념되었다.

1987년부터 타이완 정부가 이산가족의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한 이래, 양안의 주민들의 교류와 상호 방문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경로가 되었다. 당시 타이완에는 ‘뿌리찾기 열풍[尋根熱]’이 불었고 학술 교류도 이 시기 양안 교류의 핵심이었다. 1990년 8월 쑨원의 고향인 취이형촌(翠亨村)에서 “쑨원과 아시아[孫中山與亞洲]”라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고, 여기서 타이완 학자들이 처음으로 대륙에 가서 쑨원 국제 학술연구 활동에 참가했다. 이는 타이완 학자들의

중국행 교류의 시작이어서. 뒤이어 1991년 타이완 해협에서 양안 어민들의 어사분쟁 사건으로 신화통신[新華社] 기자와 중신통신[中新社] 기자가 타이완을 방문해 12일간의 취재활동을 벌였는데, 이때 중국 대륙 인원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人民日報 90/08/06; 人民日報 91/11/04; 人民日報 90/02/02).

타이완의 계엄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에서 통일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안 문제였다. 그래서 이 시기 대륙에서 쑨원은 여전히 양안 통일을 호소하는 사자 역할을 했다(人民日報 90/03/11).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분위기에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중산복’ 유행 붐이 일어났다. 이 시기 대륙 사람들은 소개팅이나 외근 등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 중산복 차림으로 진지함을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중산복 디자인에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직옷짓은 폐쇄성을 띠어 엄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治國) 이념을 나타내고, 앞자락의 5개 단추는 오권헌법을 상징한다. 4개의 앞주머니는 예(禮)·의(義)·염(廉)·치(致)를 의미하며, 소매 끝 3개의 단추는 각각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와 공화(共和)의 이념(평등·자유·박애)을, 뒷자락 가운데 봉합선이 없는 것(즉 ‘후중불파공’)은 ‘국가통일의 대의’를 나타낸다. 1980~1990년대에 이르러 ‘후중불파공(後中不破縫)’은 ‘양안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고, 민족주의가 다시 대두된 기간에는 양복 대신 중국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국복(國服)’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중산복이 유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지도자도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 중산복을 자주 착용한다(人民日報 91/08/11).

이 ‘민족주의 재소환 및 재기’ 시기 애국주의교육의 강화는 쑨원 기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함의였다. 1993년 『인민일보』는 “위대한 혁명가이자 애국자인 쑨원이 일생 동안 짊어진 숭고한 책임은 다름 아닌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구하는 것[救國救民]’이며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애국교육을 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는 내용을 실은 “쑨원의 사상교육관[孫文的思想教育觀]”이라는 글을 통해 쑨원의 사상에 애국사상을 접목시켰다(人民日報 93/12/15). 1997년 제15차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보고서는 쑨원, 마오쩌둥, 덩샤오핑을 ‘시대의 선두에서 있는 3명의 위대한 인물’로 불렀고 쑨원의 위대한 역사 공적을 다시 한 번 높

이 평가하며 “우리는 쑨원의 애국정신을 더욱 잘 계승하고 발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人民日報 97/10/01). 이렇듯 쑨원은 일약 애국교육가 이미지로 부상되었고 그의 위인으로서의 역사적 위상도 한 층 더 상승했다.

## IV. 21세기 이래 양안의 쑨원 기념

### 1. 타이완: 민진당 정권의 독립 노선과 ‘탈중국화’ 정책의 추진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대선에 승리하여 타이완의 첫 정당 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이 정권을 잡은 후 ‘탈중국화’, ‘탈장제스화(去蔣化)’, ‘탈중화민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쑨원의 국부 지위가 1946년 이래 가장 크게 흔들렸다.

탈중국화 공정은 가장 먼저 학교 교육에서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2000년 고등학교의 삼민주의 강의와 시험고사가 폐지되었고, ‘국민교육’과정으로 대체됐다. 2004년 11월 타이완 교육부가 마련한 “강령 초안”(이하 초안)에서는 국민당 정부를 ‘외래 정권’으로 간주하고 그 합법성을 대놓고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 타이완사에 역점을 두고 가르칠 것을 규정하였다. 초안에서는 20세기 후반의 타이완사를 ‘전후 초기’, ‘권위체제’시기, ‘자유민주’시기의 3 단계로 구분하고, 전후 초기 중화민국이 타이완을 접수한 문제를 처음으로 검토하였다(張鈞凱, 2011: 1-4). 이러한 타이완사 및 중화민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은 ‘국부’의 의미 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로도 민진당은 탈중국화를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2006년 1월에는 타이완 처음으로 “대만사” 교과서를 발행했다. 2007년 본격 실시된 “새로운 강령”에서는 기존 역사 과목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사를 압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 중국적인 색채를 띤 용어들은 모두 개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본국’, ‘중공(中共, 즉 중국 공산당)’, ‘대륙’으로 불렀던 명사는 모두 ‘중국’으로 통칭하였고, ‘일제 점거시기’가 ‘일치(日治)시기’로, ‘우창기의(武昌起義)’를 ‘우창기사(武昌起事)’로 바꿨다. 과거의 정부 편 교과서에서 애용했던 ‘국부 쑨원’이라는 표현도 ‘국부’를 삭

제하여 ‘쑨원’ 또는 ‘쑨원 선생’으로 변경하였다. 심지어 교육부 부장은 “중국 대륙 출신의 쑨원은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中新網 07/01/29). 이렇듯 정부는 타이완 학생들에게 중국이 ‘타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애써 왔다.

교과서 수정 등을 통해 국부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녹영<sup>22</sup> 민진당의 조치는 국민당으로 대표되는 청영<sup>23</sup>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그들은 민진당의 행위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역사)교과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생들에게 타이완 독립 사상을 주입시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청영을 중심으로 쑨원의 국부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반대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2007년 국민당 입위(立委) 리칭안(李慶安)은 새 교재가 타이완 독립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 부장 두정승(杜正勝)은 교재 수정의 기회를 이용해 타이완 독립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신문화대혁명으로 간주되고 ‘나라를 멸망시키려면 먼저 역사를 멸망해야 한다’는 표현에 맞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2006년 그리고 2007년 11월 12일 쑨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마잉주(馬英九), 우보송(吳伯雄)을 비롯한 국민당 간부들은 ‘국부기념관’에서 쑨원 유상을 향해 경례를 함으로써 민진당에 대한 저항심을 표출했다. 이 밖에도 중산루(中山樓)에서는 동요제를 개최했고, 국부기념관에서는 ‘건축의 아름다움-왕다홍(王大閔)과 국부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회, ‘쑨중산과 취이형촌(翠亨村)’, ‘쑨중산과 광둥’, ‘쑨중산과 상하이’ 특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中國新聞網 07/11/12; 自由時報 07/01/30).

이 시기 민진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시보』는 쑨원의 국부로서의 지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대량으로 내보냈다. 그중 2006년 2월호에 실린 기사에서는 “쑨원은 타이완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국부’로 불린다. 이는 국민당이 장기적으로 세뇌시키고 역사를 독점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총통은 앞으로 중요한 국가대전을 주재할 때마다 민주대만과 국민당 당국 사상을 구별 짓는 『국부유언장』을 더 이상 읽지 말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대륙에서 쑨원을 기념하는 것에 대하여 민진당은 “쑨원의 위대함을 인정하지만 타이완과는 무관

<sup>22</sup> 녹영(綠營, green camp)은 타이완에서 독립지향적이고 본토주의 성향의 정치세력을 일컫는다.

<sup>23</sup> 청영(藍營, green camp)은 타이완에서 통일지향적이고 본토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쑨원은 중국 민주혁명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확실히 중국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을 때 타이완은 일본 영토에 속했고, 쑨원이 별세했을 때도 타이완은 여전히 일본 영토였다”는 의견을 내세웠다(自由時報 06/02/03, 07/02/01, 07/01/30, 06/11/14). 이렇듯 쑨원은 민진당에 의해 중국 대륙만의 위인으로, 타이완과는 무관한 역사인물로 부각되었다.

쑨원과 삼민주주의의 이름을 딴 연구소들도 이 시기 줄줄이 이름을 바꾸었다. 타이완 대학의 ‘삼민주의연구소’는 2000년 ‘국가발전연구소’로, 1968년에 타이완 사범대학이 설립한 ‘삼민주의연구소’는 2003년 ‘정치학연구소’로, 중앙연구원이 1976년에 설립한 ‘삼민주의연구소’는 2004년 ‘인문사회연구소’로 개명하였다(邱啟璉, 2011: 4). 연구소들의 개명과 쑨원의 사상교육이 취소되면서 쑨원과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들도 타이완 학계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이에 더해 민진당 정부는 국공영사업장의 개명 작업에도 착수하여 중국 색채가 가득한 중유(中油), 중강(中鋼), 중선(中船) 및 중화우편(中華郵政) 등의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쑨원의 영정 걸기 문제도 2000년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1948년 공포된 “각급 기관 및 학교 단체의 국기, 국부 영정 및 원수 초상화의 계양에 관한 조치[各級機關學校團體懸掛國旗國父遺像及元首肖像辦法]”는 2002년에 행정원에 의해 폐지되었다. 민진당 입법위원회 가오즈펑(高志鵬)은 2015 및 2016년에 “중화민국 국휘·국기법(中華民國國徽國旗法)” 개정안을 발의해 국기만 보존하고 쑨원의 영정은 더 이상 걸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국민당 진영의 거센 반발로 인해 폐기되었다. 비록 지금도 ‘국기 아래 국부 영정을 건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권위 체제 시기처럼 타이완 내 모든 집회 장소와 심지어 모든 강의실에 국부 영정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行政院令 02/07/01).

쑨원의 대표적인 기념 장소인 국부기념관은 1980년대부터 쑨원 기념의 정치적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쑨원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국부 기념의 색채가 거의 전부 사라졌다. 2007년 국부기념관 공식 홈페이지는 쑨원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 쑨원의 생애 및 정신에 관해 찾아볼 수 없었다. 기념관의 기능 역시 원래 쑨원을 기념했던 장소에서 대형 회의실, 도서관, 예술전시장, 공연장, 갤러리, 생활미학교실 등의 공간으로 겸용되었다. 흥미롭게도 국부기념관은 2019년에 ‘고적’으로 공식 지정되었는데, 여기서 고적으로

등재된 원인은 쑨원이 아닌 이 건물을 건축한 유명 건축가 왕다홍(王大閔) 때문이었다(王定亞, 2019: 86). 이렇듯 오늘날 이 기념관은 건축미학, 경제, 공연전시 등 공간적 기능에 있어 그 본래의 기념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탈중국화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국부는 타이완 민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장준카이(張均凱, 2011: 1)의 기술에 따르면 2010년 11월 12일 쑨원의 탄신 기념일 당일, 미디어에서 타이완 민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인터뷰를 한 결과, 이 날이 특별한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홍신칭(洪鑫誠)도 그의 보도(觀察者, 2016)에서 현재 타이완인들의 쑨원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 '100위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100위안에 쑨원의 동상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쑨원에 대한 기억은 100위안 지폐의 대명사로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쑨원을 기리는 많은 동상도 두 야당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훼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타이난 쑨원 동상 파괴 사건'이다. 당시 민진당 소속이었던 라이칭더(賴清德) 시장은 쑨원 동상을 옮기겠다고 밝히자 그러자 국민당 측에서 이를 극구 반대했다. 일부 국민당원들은 곧바로 동상 옆에 주둔해 '쑨원'을 지켰고 동상이 잠깐 보존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타이완연맹(臺灣聯盟)과 대만독립건국대기대(臺灣獨立建國大旗隊) 회원 약 150명이 타이난시 탕더장(湯德章) 기념공원에 모여 이 동상을 파괴하였다. 이들은 받침대의 안전성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동상에 올라 '쑨원'의 목을 밧줄로 묶고 힘을 합쳐 끌어내렸다. 동상이 무너진 후에는 쓰러진 동상에 'ROC OUT KMT DOWN!(중화민국은 꺼져라, 국민당은 물러가라)'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발로 짓밟았다. 비록 국민당이 나서서 강력히 항의하고 일련의 항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동상은 타이난시 정부 문화국으로 이전되면서 임시 보존되었다. 그 이후 2017년 2월 15일, 타이난 시정부는 나머지 받침대를 철거했다(臺海網 14/02/23). 이 사건이 모든 타이완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쑨원이 더 이상 신성하고 위엄하며 백절불굴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쑨원의 기념을 둘러싼 갈등의 주체가 이전의 양안(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에서 타이완 내 두 야당(국민당과 민진당)으로 바뀌었다. 민진당은 타이완의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200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실현했고 전방위적

으로 탈중국화, 탈쑨중산화를 전개했다. 이렇게 쑨원은 타이완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민당과 공산당은 쑨원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역사적 기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쑨원에 대한 양측의 의미 정립과 인지, 그리고 기념 목적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어 쑨원 기념에 있어서는 일치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대륙이 과시적으로 쑨원을 기념하는 행위는 쑨원의 정통 후계자로 자처해 왔던 국민당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6년 시진핑이 전례 없는 규모로 쑨원 탄생 150주년 기념대회를 주재하자 마잉주는 언론기사를 통해 공산당이 국부를 강탈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국부는 우리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중국 공산당은 쑨원을 혁명의 선구자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국부로 삼았고, 국부가 유언에서 언급한 삼민주의는 우리 헌법에 들어 있다”고 쑨원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를 강조했다. 국민당 주석 홍슈주(洪秀柱)도 이에 대해 쑨원은 국민당의 영원한 총리로 중화민국 창조를 이끈 위인이며 진정한 계승자는 당연히 중국 국민당이라고 제기했다. 이렇듯 양안은 ‘평화통일’ 노선에서 합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쑨원 기념에 대한 정통성 확보, 즉 ‘쑨원의 정치적 가치와 이념의 계승자’라는 명분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국민당은 공산당에 비해 강한 배타적 성향을 보인다.

## 2. 중국 대륙: 애국교육 시스템 강화 및 ‘타이완 독립’ 노선 비판

2000년에 이르러 대륙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양안의 경제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00년 타이완 민진당의 성공적 집권과 민주화 발전에 따라 양안 관계는 점점 복잡화된 국면에 들어섰다. 이 시기 애국주의 교육이 보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쑨원은 중국 대륙에서 애국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거듭났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정치적 자원으로써 전례 없는 정도와 규모로 기려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륙에서 쑨원을 적극적으로 기립으로써 쑨원을 국부로 추앙하는 국민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탈쑨원화’를 주장하는 민진당과 대립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21세기 이래 대륙은 민족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전국에 애국주의

교육열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 중공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傳部)는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전국 200개의 시범기지를 발표했고, 2002년 제1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후진타오는 위대한 민족정신의 고양과 육성의 현실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가치의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인민대중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人民日報 06/11/13). 2004년에는 “미성년자의 사상도덕 건설을 더욱 강화, 개선하는 데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和改進未成年人思想道德建設的若幹意見]”을 공포하여 미성년자 사상도덕 건설에서, “애국주의 교육실시 강령”과 “공(국)민도덕 건설 강령”에 준하는 애국정서를 고취하고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을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애국주의 교육의 터전인 박물관, 기념관, 혁명유적지 등의 기념장소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기지에서는 쑨원은 대표적인 애국주의 교육 소재로 활용되었다. 2004년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업무 총서”에서는 “쑨원을 비롯한 애국주의자들이 무수한 인인지사(仁人志士)들로 하여금 민족의 위기와 고난에 직면하여 용감하게 나서고 헌신적으로 분투하며 심지어 희생을 아끼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있다”고 기술되었다(人民日報 04/07/12). 2000년 『인민일보』는 쑨원과 중국 민족주의의 관계 분석을 통해 “쑨원은 중국 민족주의의 옹호자”이며 “민족주의는 국가 발전과 종족 생존을 도모하는 보물”이라고 주장했다(人民日報 00/03/30).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시기 대륙은 쑨원이 제기한 삼민주의 중 민족주의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삼민주의 중 민주주의와 민생주의를 중요시하는 타이완과 다르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민진당 집권 시기 타이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교류는 쑨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6년 련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이 베이징 향산 비원사를 찾아 쑨원 의관총을 참배하였다. 그는 “쑨 선생은 자신의 일생을 나라를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보지 못한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인민의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양안 평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함께 노력

합시다!”고 호소했다(人民日報 05/04/01).

이 시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거리를 좁혀 가는 동시에 민진당에 맞서 그들을 ‘타이완 독립(臺獨) 세력’이라고 칭하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대륙은 민진당 집권 후 교과서를 개편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타이완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과 여론 준비”라고 지적했으며, 타이완 고등학교 역사 교과과정에서 쑨원 혁명에 관한 내용을 생략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말살하는 것”으로 ‘탈중국화’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적 독립활동’이라고 비판했다(人民日報 04/11/13). 2007년 타이완 역사 교과서에서 ‘국부 쑨중산’의 ‘국부’를 삭제하는 탈중국화 공정, ‘타이완을 주체로 하는 역사관 구축’활동 등이 차근차근 전개되자, 대륙 측은 우려를 표하며 “타이완 당국이 이렇게 하는 정치적 의도는 타이완 교육을 ‘타이완 독립’사상교육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 독립 세력들이 어떤 수작을 부려도 어떤 수단을 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人民日報 07/02/07).

‘타이완 독립 세력’이 점점 커지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양안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공산당은 쑨원에 대한 기념을 더욱 중요시했다. 특히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쑨원에 대한 기념은 전례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시진핑 시대는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화되는 시기이다(김란, 2017: 239). 따라서 이 시기는 쑨원을 기념할 때 ‘중국 공산당은 쑨원의 충실한 계승자’라는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국가 부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였다.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쑨원 탄생 150주년 총회에서 시진핑은 “쑨원의 분투 목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락한 나라,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인민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또한 “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동지들은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는 쑨원의 말을 인용하여 (양안의) 모든 중국인들이 함께 분투하자고 호소하며 “양안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習近平會議發表 16/11/11). 이와 같은 시진핑의 “쑨원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총회에서 연설” 내용은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조선족 등 총 7 가지 중국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편찬되어 전국에 배포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2000년대에 들어 대륙에서의 쑨원 기념행사가 사상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범위는 정치권이나 지도층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 국민들이 함께 쑨원을 기념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쑨원의 초상화가 텐안먼 광장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쑨원은 비록 국공 양당의 공통기억으로 소환되지만 공산당은 국민당과 달리 쑨원의 ‘국부’ 호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유의할 만하다. 신중국 성립 이후 대륙 당국은 공식적인 자리나 문서에서 쑨원을 언급할 때 흔히 사용하는 칭호는 ‘혁명의 선구자’ 또는 ‘쑨원 선생’일 뿐 ‘국부’라고 부른 적은 없었으며 중국의 국부를 쑨원이나 그 외의 누구로 규정지은 적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2002년 11월에 개정된 “타이완 관련 홍보문구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의견(關於正確使用涉臺宣傳用語的意見)”에서는 타이베이의 ‘국립국부기념관’을 ‘타이베이 중산기념관’으로 칭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타이완이 민진당 집권 이후 타이완 교과서에서 정작 쑨원의 접두어인 ‘국부’를 삭제하자 대륙은 오히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륙은 ‘국부 쑨원’이라는 호칭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타이완 민진당 세력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륙은 이 명칭에 대한 입장 정리 대신 쑨원에 대한 기념행사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즉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보존(求同存異)하며 ‘포용적’인 자세로 중화민국 역사에 접근함으로써 이를 당의 역사와 융합시키려는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 V. 나가며

양안 쑨원 기념의 내용과 강조점 그리고 쑨원의 상징적 의미를 시기별로 표로 정리 및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안이 각자 쑨원을 기려온 열기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타이완은 과거 가장 큰 규모로 쑨원을 기렸으나 점차 그 열기가 감소하여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중국 대륙은 쑨원을 거의 기리지 않다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

표 1 양안 쑨원 기념의 변화

		타이완	중국 대륙(공산당)
냉전·분단 체제의 형성, 공고화 시기	1946~1949년 전반	탈식민지화와 중화민국화 재건의 표상: ‘국부’ 지위 선포, ‘황민’사상 배제	-
	1949~1970년 이전	냉전적 표상: ‘반공복국’, ‘대륙반격’, ‘반공항리’	냉전적 표상: ‘연리항미’ ‘항미원조’ ‘무력에 의한 타이완 해방’
냉전·분단 체제의 점진적 해체 시기	1970~1980년대 말 이전	‘무력 대신 평화로운 대륙 반격’의 상징: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 경제건설을 통해 평화적 반격(민생주의 강조)	평화통일의 상징: 무력 대신 평화적 통일, 경제건설, ‘진흥중화’
	1980년대 말~2000년 이전	쑨원을 통해 민주화 추진: 쑨원 국부이미지 약화 (민권주의 강조)	민족주의 표상: 양안 평화통일 추진(애국주의 강조)
2000년~현재		탈쑨원화를 통해 탈중국화: 국민당: ‘하나의 중국’ 인정, 타이완독립 반대 민진당: 독립 노선	쑨원을 통해 애국주의 시스템 강화 및 타이완 독립 노선 비판: 국민당과 협력, 민진당과 대립 (민족주의 강조)

는 전례 없이 큰 규모로 기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이완은 1946년부터 1987년까지 쑨원을 국부로 추앙하고 그에 대한 기념 열기도 최고조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민주선거를 확립하고 민주화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쑨원에 대한 기념의 강도는 갈수록 약해졌다. 특히 2000년대 처음으로 정당이 교체되면서 쑨원의 국부 이미지는 역사 이래 가장 크게 흔들렸다. 오늘날 타이완 민진당이 우세하고 있는 흐름 속에 쑨원 기념행사는 번번이 좌절을 겪었고, 민중들 사이에 쑨원에 대한 기억 역시 차차 사라질 수 있다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46~1949년 국공내전기 중국 공산당 측에서 쑨원은 전혀 기념되지 않다가 1949년 10월 신중국이 건국되면서 쑨원은 새롭게 ‘부활’하였다. 그러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쑨원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고 그에 대한 기념도 일시 중단되었다. 뒤이어 1970년대 말 문화대혁명이 끝날 무렵,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동아시아 냉전체계가 해체되면서 쑨원은 ‘재부활’하여 또다시 기념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들어 대륙에서의 쑨원 기념은 전례 없이 활발해졌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래 그에 대한 기념행사 열기는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시기를 막론하고 양안에서 쑨원을 기념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을 비교해 보면, 타이완은 시간, 공간, 의례, 대중매체 등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쑨원 기념을

전개했다. 우선 시간적 차원에서는 쑨원과 관련된 날들을 명절로 기념했다. 예를 들어 탄신기념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고, ‘국부기념주’를 제정하여 매주 정부기관, 단체, 학교에서 정형화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요구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쑨원의 이름을 딴 도로와 학교를 만들고 중산당, 중산기념관, 중산공원 등 광범위한 쑨원 기념공간을 세웠다. 또한 의례적 차원에서는 각종 규범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회 또는 중요 행사에서 국부 유상에게 예를 올리고 ‘국부 유언장’도 낭독할 것을 규정하였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쑨원의 사상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고사체제를 실시했고, ‘국부기념가’를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노래로 지정했다. 학계에서는 쑨원에 대한 학문인 ‘쑨학’을 만들고 관련 연구소들을 설립했다. 또한 쑨원 사상을 선전할 때는 포어, 라디오,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한편, 중국 대륙의 쑨원 기념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쑨원과 관련된 주년기념회의(탄신주년기념, 서거주년기념, 신해혁명주년기념)를 개최하고 정부 관료 대표들이 쑨원의 기념 장소에 방문하여 헌화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쑨원 기념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애를 썼다. 학계에서는 쑨원과 관련된 서적을 대량 출판하였고 쑨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도 많이 조직했다. 이 밖에도 중대한 명절날에는 베이징 톈안먼광장에 대형 쑨원 초상화를 설치하기도 하고, 쑨원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공연 등이 대거 상영되어 한 동안 ‘중산복’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중국 대륙에서도 쑨원 기념을 중요시했지만 타이완처럼 톱다운식으로, 다시 말해 중앙에서 지방까지, 지도층에서 민중까지의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기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대륙에서 진행된 쑨원의 기념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층, 고위층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전 국민적 동원은 없었다. 그리고 쑨원 관련 명절·기념일을 제정하거나 유상에 경례하는 등 의례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대륙에서는 타이완과 달리 쑨원을 국부로 간주하지 않고 쑨원이라는 인물 자체 또는 그의 사상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면, 중국 대륙의 쑨원에 대한 기념과 평가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1946~1949년 국공내전 시기와 문화대혁명시기에 공산당은 쑨원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신중국 건국이후

대륙은 쑨원을 기리기 시작했지만 그를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았을뿐더러 ‘민간 차원에서 (국민정부시기의) 쑨원 기억 지우기’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쑨원 기억 재구축하기’라는 이중의 정책을 펼쳤다. 쑨원 기념의 정통성에 대한 양안 사이의 경합에 있어서, 1970년대 이전 국공 양측은 서로 확고히 저항하면서 각자 스스로를 쑨원의 진정한 계승자로 위치 짓고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다 1970년대 ‘평화통일’ 방침이 확립된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 모두 쑨원을 공통 문화의 연결 고리로 간주하면서 상호 간의 교류를 증진해 왔다. 이 시기 ‘쑨원을 쟁탈’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대륙에서 과시적으로 쑨원을 기리는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자 국민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쑨원을 ‘쟁탈’하려는 성향을 다시금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당의 일방적인 쟁탈에 맞서 공산당은 쑨원 ‘독점’을 위한 배타적인 경쟁을 벌이는 대신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공산당은 양안 공통의 쑨원이라는 동질성을 강조하고 그 기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당과의 우호관계를 추구하려는 지향성도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국 공산당은 대륙에서 합법정권을 수립한 후 중화민국시기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융합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국 대륙에서 정권을 수립한 후, 쑨원을 비롯한 중화민국의 역사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이를 당의 역사와 융합시켜 왔다. 특히 1970년대 데탕트부터 공산당은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포용성을 더욱 내세우면서 쑨원이 ‘양안 공통의 역사적 기억’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타이완은 시간이 지날수록 쑨원을 비롯한 중화민국시기의 역사를 자신과 분리시키는데 애써 왔다. 타이완은 냉전 대립기 시절 ‘반공복국’을 지향하면서 쑨원을 ‘국부’로 세우고 위인으로 추대하였으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 해체기에 이르러 ‘대륙을 반격한다’는 당초의 지향이 퇴색하자 쑨원의 ‘국부’ 이미지를 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2000년부터 타이완 당국은 ‘탈중국화’를 꾀하기 위해 쑨원과의 역사적 기억을 분리시키는데 힘써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국제적 위상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1949년 신중국이 수립되고, 1970년대 말 미국, 일본 등의 나라와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

고 국제적 위상도 수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고 국제적 위상도 덩달아 크게 상승하였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국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더 큰 포용성을 가지고 지난 역사를 당의 역사와 융합시킬 수 있었다. 한편, 타이완은 대륙에 비해 자체 역량과 국제적 위상에서 점점 더 열세에 처하게 되었기에, 중화민국 시기의 역사로부터 벗어나 중국 대륙과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정권의 독립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까지 양안에서 각자 기념하는 쑨원은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판연히 달라 사실상 공통의 기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공산당과 국민당은 모두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에서 쑨원에 관한 공통의 기억을 소환했지만, 쑨원에 대한 정체성과 기억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합의된 바가 거의 없고, 시기별 양측의 쑨원 기념행보도 어긋났다. 한편, 2000년대 민진당 집권 이래 쑨원의 국부 지위 또는 쑨원과 타이완의 관계에 대해 부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그나마 동질성을 보였던 쑨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타이완 사회에서 서서히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쑨원이 공통된 기억 자원으로서 양안의 평화통일에 미치는 실질적 효용은 크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공통의 기억이 동아시아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위적인 사고에도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투고일: 2022년 2월 15일 | 심사일: 2022년 6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 참고문헌

### 1차 자료

中華民國憲法. 1947.

習近平. 2016. 在紀念孫中山先生誕辰150周年大會上的講話(11月11日)(시진핑의 회의발표).

廢止「機關學校團體懸掛國旗國父遺像先總統蔣公遺像蔣故總統經國先生遺像暨元首玉照辦法」, 2002.

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1945. 臺灣省各縣市街道名稱改正辦法(11月17日).

教育部公報. 1946. 令發修建中山堂辦法、中山堂建築及設備標準仰遵照辦理(11月6日).

臺灣省行政長官公署公報. 1946. 電催各縣市政府呈報修建中山堂情形.

臺灣省政府公報. 1948. “臺灣省政府代電”(三七西齊府綜文字第70672號)(10月8日).

臺灣省政府公報-農林處公報. 1948. 各縣市植樹節紀念辦法(3月5日).

林業局局誌. 1946(3月12日).

臺灣省行政長官公署: 教育處公告(三字第55226號). 1946(12月16日).

印製品加印反抗俄宣傳標語暫行辦法. 1952.

臺灣省政府公報(43年秋自第42期)1954. 令臺灣省政府所屬各機關、省立各級學校為抄發國父紀念歌與領袖歌各1份, 希知、遵照>

臺灣省政府公報: 臺灣省政府教育廳令(字第31023號), 1952(8月8日).

總統府公報: 國定紀念日日期表(31:渝:446(31.3.7)). 1942(3月7日).

## 신문기사 자료

“國民黨改革問題的兩個道路: 紀念孫中山先生逝世廿一年.” 1946. 『解放日報』(3月12日).

“不能汙辱中山先生.” 1946. 『新華日報』(3月12日).

“中國法西斯派向孫中山民主主義挑戰.” 1946. 『解放日報』(3月30日).

“孫中山先生86周年誕辰, 南京各界昨謁中山陵.” 1952. 『新華日報』(11月13日).

“昨為孫中山先生逝世二十九周年紀念日, 陳毅市長特派人前往先生故居敬獻花圈, 潘漢年副市長及各界代表均往故居瞻仰.” 1954. 『新聞日報』(3月13日).

“孫中山紀念孫中山誕辰: 南京各界代表昨謁陵, 粟裕將軍獻花後作簡短演說.” 1949. 『人民日報』(11月13日).

“紀念孫中山先生要為貫徹今天的中心任務而奮鬥.” 1951. 『人民日報』(11月12日).

“中國人民政協全國委員會舉行紀念大會: 紀念孫中山先生逝世三十周年.” 1955. 『人民日報』(3月12日).

“政協全國委員會常務委員會舉行擴大會議: 決定隆重紀念孫中山誕辰九十周年.” 1956. 『人民日報』(10月23日).

“紀念孫中山先生: 毛澤東.” 1956. 『人民日報』(11月12日).

“周恩來在辛亥革命五十周年紀念大會上的講話.” 1961. 『人民日報』(10月10日).

“周恩來在孫中山先生誕生一百周年紀念大會上的講話.” 1966. 『人民日報』(11月13日).

- “人民日報設在中山大學的孫中山紀念館恢復開放。” 1978. 『人民日報』(11月16日).
- “江青惡毒攻擊孫中山先生究竟是為什麼?” 1977. 『人民日報』(3月13日).
- “蟲豸的營營: 從江青咒罵孫中山先生談起.” 1977. 『人民日報』(11月12日).
- “紀念孫中山先生逝世五十五周年.” 1980. 『人民日報』(3月12日).
- “民革中央, 民革北京市委員會舉行座談會: 紀念孫中山先生逝世五十六周年, 寄語臺灣的老朋友老同事老同學, 共同為實現祖國統一作出貢獻.” 1981. 『人民日報』(3月12日).
- “南京孫中山臨時大總統, 辦公室和起居室修繕完畢.” 1981. 『人民日報』(8月4日).
- “廣東籌備紀念孫中山誕辰一百二十周年, 學術討論規模大, 紀念專刊內容豐, 維修遺址撥款多, 中山故居整修新.” 1986. 『人民日報』(11月1日).
- “孫中山紀念堂在中山縣落成.” 1983. 『人民日報』(11月11日).
- “孫中山紀念銅像基典禮在京舉行.” 1985. 『人民日報』(3月10日).
- “為紀念辛亥革命七十周年: 孫中山先生著作和一些研究專著陸續出版.” 1981. 『人民日報』(5月1日).
- “《辛亥革命史叢刊》創刊.” 1981. 『人民日報』(4月17日).
- “《孫中山哲學思想》出版.” 1981. 『人民日報』(10月27日).
- “《孫中山先生畫冊》出版.” 1986. 『人民日報』(10月11日).
- “南京舉行孫中山學術討論會.” 1986. 『人民日報』(11月8日).
- “孫中山學術討論會在粵舉行.” 1984. 『人民日報』(12月1日).
- “孫中山研究評述國際學術討論會綜述.” 1985. 『人民日報』(4月12日).
- “進一步加強孫中山的研究工作.” 1985. 『人民日報』(5月3日).
- “學習孫中山的精神, 為振興中華而奮鬥.” 1981. 『人民日報』(9月25日).
- “海內外學者聚首中山市: 舉行孫中山學術討論會.” 1990. 『人民日報』(8月6日).
- “不可逆轉急需開拓: 述評海峽兩岸交流形勢.” 1991. 『人民日報』(11月4日).
- “錢偉長程思遠與臺灣教授訪問團座談: 就兩岸學術交流等問題交換意見.” 1990. 『人民日報』(2月2日).
- “孫中山先生雕像在碧雲寺落成: 習仲勛谷牧程思遠等出席揭幕儀式, 朱學範在雕像揭幕儀式上發表講話.” 1990. 『人民日報』(3月11日).
- “李贛驪代表民革中央在政協大會上發言: 抓住時機促進祖國和平統一.” 1992. 『人民日報』(3月28日).
- “孫中山不是國父.” 2006. 『自由時報』(2月3日).
- “你們國父.” 2007. 『自由時報』(2月1日).

- “國父走下神壇.” 2007. 『自由時報』(2月1日).
- “國父? 再見! 總統不應唸KMT總理遺囑.” 2007. 『自由時報』(1月30日).
- “國共扭曲孫中山言論合演促統雙簧.” 2006. 『自由時報』(11月14日).
- “高中歷史: 不稱國父已數年.” 2007. 『自由時報』(1月30日).

## 2차 자료

- 오준방. 2019. “진먼도(金門島)의 탈/냉전과 정체성의 딜레마: 소양안(小兩岸)의 교류와 관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성. 2006.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 5·18연구소.
- 정근식. 2014.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지구적 냉전하의 동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기.”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제2권, 41-76.
- 김관. 2014. “민족주의 경합의 장으로서 ‘정성공(鄭成功)’: 역사영웅 만들기.” 『사회와 역사』 104권, 107-139.
- \_\_\_\_\_. 2017.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118호, 227-252.
-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 張鈞凱. 2011. “在臺灣重新發現孫中山.” 『海峽評論』 379期, 1-4.
- 王定亞. 2020. “文資場域的多元運用與創意實踐: 以國父紀念館的古蹟化為例.” 『雕塑研究』 23期, 73-100.
- 蔣雅君. 2008. “民族形式與紀念性: 臺灣現代主義建築之‘地域性’表述.” 『城市與設計學報』 19期, 49-89.
- 葉韻翠. 2014. “領袖名與紀念的空間政治: 臺灣的中山、中正地名之比較研究.” 『白沙歷史地理學報』 15期, 47-86.
- 林果顯. 2009. “一九五〇年代反攻大陸宣傳體制的形成.”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研究部博士論文.
- 楊永福. 1993. “臺灣當局“大陸政策”的演變: 兼談對兩岸統一前途的展望.” 『社科縱橫』 1993-5期, 38-43.
- 魏文享. 2011. “孫中山國父形象在臺灣的歷史型塑與記憶結構.” 『學術月刊』 43卷6期, 148-154.
- 陳蘊茜. 2006. “植樹節與孫中山崇拜.” 『南京大學學報』 2006-5期, 76-90.
- 任丙強. 2004. “中國民族主義的重新興起: 原因、特征及其影響.” 『學海』 2004-1期, 78-82.
- 劉碧蓉. 2016. “臺灣孫學研究之回顧(1990~2015): 兼論國立國父紀念館之角色.” 『孫學研

- 究』20期, 17-42.
- 邱啟琰. 2011. “臺灣國父紀念館之變革與發展.” 國立臺灣大學社會科學院國家發展研究所碩士論文.
- 張衛明. 2019. “言中山而伸政見：近百年中國共產黨紀念孫中山的政治意蘊變遷.”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6卷2期, 146-160.
- 潘大禮·黃兆. 2015. “建國前中共黨人對孫中山的紀念.” 『南華大學報(社會科學版)』16卷3期, 72-77.
- 張海鵬. 2001. “五十年來中國大陸對孫中山的紀念與評價.” 『黨的文獻』2001-5期, 58-62.
- 郭輝. 2016. “新中國成立以來紀念活動中的孫中山敘述.” 『南京社會科學』2016-7期, 140-147.
- 付啟元·盧立菊. 2021. “新中國成立後中國共產黨對孫中山的紀念.” 『檔案與建設』2021-10期, 81-83.
- 鄒增華. 2006. “文革期間孫中山銅像歷險記.” 『西北民族研究』2006-5期, 56-59.
- 蔡相輝. 1994. “以媽祖信仰為例：論政府與民間信仰的關係.” 『民間信仰與中國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 437-454.
- 鄒瑜. 1991. 『法學大辭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文化工作會 主編. 1984. 『三民主義建設成果專輯之三：經濟建設』. 臺北：正中書局.
- 謝俊美. 2014. “歷史視野下的中山紀念、中山崇拜現象再探討.” 『近代中國』23期, 58-74.
- 丁留寶·張潔. 2013. “紀念活動與政治表達：南京國民政府對孫中山的紀念(1937~1945).” 『蘭臺世界』19期, 39-40.
- 續佩佩. 2016. “孫中山與三民主義.” 『祖國』2016-23期, 36-39.
- 靳燕凌. 2019. “延安時期中國共產黨對辛亥革命和孫中山的紀念與評價研究.”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41卷5期, 73-79.
- 林桶法. 2005. “逐漸模糊的偉人塑像：國父誕辰紀念日相關報導的分析1950~2004.” 第八屆孫中山與現代中國學術研討會. 臺北.
- Alderman, Derek H. 2002. “Reputational Politics of Commemorating Martin Luther King Jr. in a Georgia County.” *Historical Geography*, 99-120.
- 中新網. 2007. “臺灣高中歷史課本刪除孫中山「國父」一詞.” <https://ppfocus.com/0/hice2c97b.html>(검색일: 2021. 10. 10.).
- 中国新闻网. 2007. “馬英九率國民黨主管參拜國父紀念館.” <http://news.sohu.com/20071112/n253200990.shtml>(검색일: 2021. 11. 1.).

- 根雨屋. 2019. 當年不能做的事! 教室要掛滿遺像. <https://www.thinkingtaiwan.com/content/7825>(검색일: 2021. 10. 10.).
- 臺灣網. 2014. “臺獨”組織“公投護臺灣聯盟”拉倒臺南孫中山銅像. <http://cul.sohu.com/20140224/n395525304.shtml>(검색일: 2021. 10. 30.).
- 新華網. 2016. “臺灣還有多少人認同孫中山這個“國父.” 洪鑫誠.” [http://www.gov.cn/jrzq/2011-11/10/content\\_1989998.htm](http://www.gov.cn/jrzq/2011-11/10/content_1989998.htm)(검색일: 2021. 11. 10.).
- 中国臺灣網. [http://www.taiwan.cn/zt/gjzt/10\\_hwtch/10\\_hwtchzx/201107/t20110714\\_1922678.htm](http://www.taiwan.cn/zt/gjzt/10_hwtch/10_hwtchzx/201107/t20110714_1922678.htm)(검색일: 2021. 12. 1.).
- 國立故宮博物館. 2014. [https://web.archive.org/web/20150711230720/http://www.npm.gov.tw/exh100/diplomatic/page\\_ch04.html](https://web.archive.org/web/20150711230720/http://www.npm.gov.tw/exh100/diplomatic/page_ch04.html)(검색일: 2021. 12. 1.).
- 全國法規資料庫.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020021>(검색일: 2021. 12. 2.).
- 臺北中山堂官網. <https://www.zsh.gov.taipei/cp.aspx?n=1871B2AB2D00E0A5>(검색일: 2021. 11. 8.).
- 臺灣影視聽數位博物館. [https://tfi.openmuseum.tw/muse/digi\\_object/ad3ee3ac2475f3d0648567854eab1ae3](https://tfi.openmuseum.tw/muse/digi_object/ad3ee3ac2475f3d0648567854eab1ae3)(검색일: 2021. 11. 8.).
- 彼此不要羨慕. 電影日誌. 2012. <http://suling213.blogspot.com/2012/03/blog-post.html>(검색일: 2021. 10. 6.).
- 記憶中的中山裝. <https://baijiahao.baidu.com/s?id=1691669418158676231&wfr=spider&for=pc>(검색일: 2021. 9. 23.).
- 手藝人80年代末的記憶即將逝去的中山裝裁縫匠人. <https://baijiahao.baidu.com/s?id=1618419820935579818&wfr=spider&for=pc>(검색일: 2021. 12. 6.).
- 中山學術資料庫—國父史蹟. <https://sunology.culture.tw/cgi-bin/g32/gsweb.cgi/ccd=ji.UlF/msgarea?id=MSA00000024>(검색일: 2022. 5. 26.).
- 觀察者. 2016. “洪鑫誠: 臺灣還有多少人認同孫中山這個國父.” [https://www.guanchan.com/HongXinCheng/2016\\_11\\_15\\_380581.shtml](https://www.guanchan.com/HongXinCheng/2016_11_15_380581.shtml)(검색일: 2022. 4. 26.).
- 民視新聞. 2016. “誰是孫文繼承者馬英九: 國父是我們的.” <https://www.youtube.com/watch?v=0geuZck7AEk>(검색일: 2022. 7. 1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moration of Sun Yat-sen across the Taiwan Strait after 1946

Gu Fe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and differences in celebrating Sun Yat-sen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which are subdivisions under the Cold War and a divisional group system in East Asia. Sun Yat-sen is regarded as the Founding Father of Republic of China, and it can be hypothesized that he will be the subject of the symbol for national legitimacy on both Mainland China and Taiwan. In this study, the period from 1946 to the present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the method, content, and emphasis of Sun's Commemoration a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symbolic politics regarding Sun Yat-sen has gradually weakened in Taiwan, while the trend of strengthening in Mainland China is gradually confirmed. This is in line with the gradual separation of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China before 1946 in Taiwan, while Mainland China has gradually fused the histor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Sun Yat-sen, as common memories, are recalled on the way to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but it can be judged that there is little practical utility.

**Keywords** | Sun Yat-sen, Cross-Taiwan Strait, commemoration, Mainland China, Taiwan

